	<b>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4.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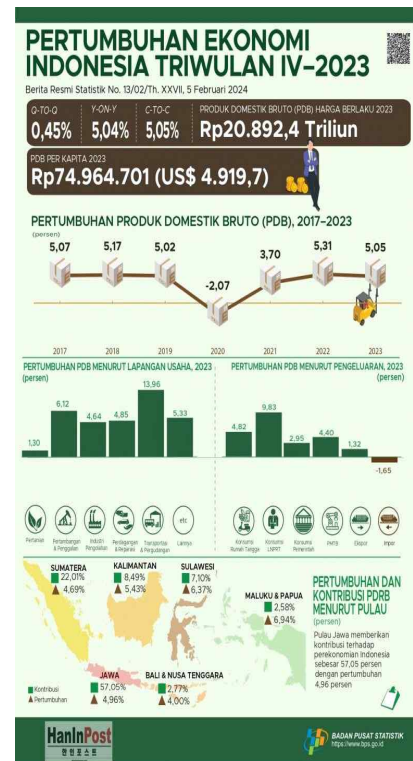
## CEPA Insight

- 경기 침체 진입 확률 인니1.5%...미국은 40%
-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해도 돼
- 가당 음료 소비세 올해 비준 완료
- 니켈 리튬 코발트 포함 배터리 소재 가격 더 떨어진다, 공급 과잉 올해도 지속

### ■ 경기침체 진입 확률 인니1.5%...미국은 40%

(출처: 한인포스트, 2024.03.04)

- 세계은행의 전망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2023년에는 경제가 5.05%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은 2.57%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비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 조코위 대통령은 영국과 일본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 주요 국가에 경기 침체가 닥칠 확률이 높다면서 독일 72%, 유럽연합(EU) 60%, 미국 40%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5.05%>

(출처: 한인포스트)

### ■ 인도네시아로 수출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해도 돼

“관세청, 인니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

(출처: 한인포스트, 2024.03.07)



<고광호 관세청장(오른쪽)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한인포스트)

- 한국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의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해당 상품이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양국이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교환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 관세청은 절차 간소화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애로 예방을 기대했다. 양국은 마약밀수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정보 공유와 인적교류 등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다음으로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 가당 음료 소비세 올해 비준 완료

- 소비세 적용 대상 음료의 종류는 종류, 가공방법, 당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단데 차관은 포장감미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감미 음료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장 감미 음료(MBDK)에 대한 소비세 규정을 재무부 산하 관세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관세 소비세국은 포장감미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규정이 보건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포장가당음료 (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 이하 MBDK)>

(출처: 한인포스트)

- Askolani 관세청장은 포장 감미 음료 소비세 시행은 규정 제정이 완료된 후에 정부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건부가 이에 관한 규정이 올해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삭소노하르부워노 보건부 차관은 "포장 감미음료 소비세 규정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으며, 남은 것은 이를 사회화하는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 ■ 니켈 리튬 코발트 포함 배터리 소재 가격 더 떨어진다, 공급과잉 올해도 지속

(출처: 비즈니스포스트, 2024.03.06)

- 5일(현지시각) CNBC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코발트와 니켈, 탄산리튬의 가격이 향후 1년 동안 각각 12%, 15%, 25%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1년 뒤 코발트의 예상 평균 가격은 미터톤당 2만6천 달러, 니켈은 1만5천 달러, 탄산리튬은 1만 달러로 제시됐다. 해당 광물 가격은 2023년 한 해 동안 이미 최고점 대비 60%~80% 하락한 상태다.



<니켈을 추출하는 과정>

(출처: 연합뉴스)

- 광물 채굴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맞춰 지난 수 년 동안 배터리 소재 광물 공급을 크게 늘려왔는데 그러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충전 설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 골드만삭스는 "리튬과 니켈의 경우 2024년 잉여 공급량이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CNBC는 다른 투자은행 UBS의 분석을 인용해 "광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 ■ 시사점

-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절차가 점점 원활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변화되고 있어 그 변화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F & B 부문에서 규제가 변경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하기 전에 시장 동향과 규제 변동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